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 6b)

2018년 마지막 며칠을 남겨 둔 오늘, 올 한해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 모로 도움을 베푸신
여러분께 성탄 및 신년을 맞으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칸디 현장에서 사역하는 직원들입니다.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모처럼 시내에서 회식을 베풀었습니다.
(왼쪽부터 지은택 선교사, 어네스트, 루카, 김용진 선교사, 보비, 보비 주니어, 캄발레 목사님, 이승선 선교사)



교도소 선교와 어린이 급식 사역, 원어나더 사역, 방송선교사역 등등의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부터 내년 1월 7일 개학까지 학교
급식사역은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 영양식 치콘디팔라를 배달해야 할
곳이 차츰 늘고 있는데다가 기존의 트럭들이 노후되어 최근에
보츠와나(Botswana)라는 인근 나라에서 트럭 한대를 구입했습니다.

원어나더 프로그램은 현재 마칸디 인근에 7개 교회, 잘레카
유엔난민촌 지역에 5개 교회와 2개의 지역사회 봉사단체까지
포함하여 도합 14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난민촌
원어나더 프로그램 교회의 목사님들과 단체 대표들입니다. 주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들로 구성된 교회를 시무하시는
목사님들이고 오렌지색 잠바를 입으신 분은 부룬디 난민교회
목사님이십니다.



2019 년에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와 도움을 앙망합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핍절한 가운데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말라위 사람들과 난민들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맑고 겸손하며 범사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엿그제 주일에 재소자 47 명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내년 부활주일에 세례 받기를 희망하였고 그때 신앙고백의 일환으로 시편 51 편을 암송하게 됩니다.



뜻깊고 즐거운 성탄과 더 예수님 닮아가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8 년 12 월 18 일 말라위에서 김용진 선교사 올림